

2013년 11월 (제 14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몽돌, 파도를 감으며

유대준

내가 던진 화두다
거대한 몸뚱이 뒤채고 비틀어 빛은
발음되지 않는 언어다
세살 헐거워, 소리 뒤바뀔 때마다
침묵의 끝, 닿지 않는 곳까지 부서진 파도
분명 그건 다듬고 다듬어 빛은 울림
말씀일진대
온몸으로 감아 구르지 못하고
세상이 내지른 질문에 취한
우매한 증생은
몇 겹을 구르고 굴러야
몽돌이 될까
물소리 깊은

난, 늘 소리만 높다.

유대준

1993 「문학세계」 시 '휴경지' 연작 당선
2013 제7회 전북해양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눈 바로 뜨고 계는 옆으로 간다」, 「춤만 남았다」 등이 있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01	열린마당 바닷길을 통한 신라의 문화 교류	03
PART 02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에서의 삶 1(해양문화 1)	05
PART 03	기획전시 우리바다와 해양지명 기획전	07
PART 04	소장품 이야기 범사도권 泛槎圖卷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강연후기	14

열린마당

바닷길을 통한 신라의 문화 교류

신라는 적석목곽분과 같은 독특한 무덤 방식, 그리고 마치 몽고의 부족장 회의인 쿠릴타이를 연상케 하는 화백제도 등을 통해 북방 유목 민족적 성격을 가진 문화로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닷길의 개척에서도 상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도 그럴 것이 위쪽으로는 고구려에 막혀있고, 서쪽으로는 백제에 막혀있었던 신라의 입장에서 대외교류를 위해서는 한강유역의 확보도 중요한 사업이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동과 남으로 트여있는 바닷길 역시 중요한 해외 진출의 루트였을 것이다. 이미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보이는 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를 젓고 있는 꽤 큰 규모의 조선술이 이미 이 일대에서 발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술 이야말로 고래와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밀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앞서 금관가야는 후한 건무 24년(48년) 바닷길을 통해 수로왕의 왕비가 된 인도 아유디아의 허황옥을 맞아들였다고 전해진다. 비록 이 사실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확실한 것은 바닷길을 통해 인도 혹은 인도문화로 인식되었던 외래문물이

외래문물이 가야지역에 전래되었다는 것만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당시 허황옥의 아버지가 무사히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에 실었다는 파사석탑과 같이 무사항해를 위해 탑을 배에 싣는 전통은 사실 동남아시아 뱃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허황옥이 동남아시아의 배편을 통해 가야에 상륙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아마 가장 현실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격적으로는 진흥왕 35년(574)에 완성된 황룡사의 장육상이 울주 곡포에 나타난 인도 아육왕(아쇼카왕)이 보낸 배에 실려 있던 구리와 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역시 전설적인 이야기이지만, 당시 황룡사의 장육상을 정해진 기한 안에 급히 만들기 위해 그 재료를 중국 남부지역에서 실어다 온 것이 신화화되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아쇼카왕 설화는 불교가 처음 전래되던 시기에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흔히 내세우던 이야기였다. 아마도 진흥왕은 장육상을 세울 재료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있었던 아쇼카왕 설화도 함께 들여온 셈이 되는 것이다.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도 해양개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원래 우산국은 말하자면 동아시아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바이킹 같은 부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동해안 뿐 아니라 연해주와 대마도·일본 지역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하니, 512년 이사부의 정벌은 단지 섬 하나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해의 해양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랬기에 멀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시암 벽화에 그려진 신라사절도 삼국통일 이전에 이미 이때 확보된 바닷길을 통해 북상하여 초원 길을 따라 이동했다고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해양활동이 이후 신라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났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 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해양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종종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지금의 우주개발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참 미국과 소련은 누가 달에 먼저 발을 내딛는가에 사활을 걸고 경쟁했다. 그것은 당장 달에서 지하자원을 파내 자원문제를 해결하거나, 인류를 이주시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행해진 도약이 아니었다. 그러한 우주개발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지금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시 우주개발의 역사를 과소평가할 수 있을까? 신라의 이러한 활발한 해양루트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지닌 북방 문화적 요소를 더욱 풍부하고 적응력이 강한 세계 문화로 성장시켜 결국은 장보고와 같은 해상왕과 삼별초와 같은 해군력을 배출하는데 밀바탕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에서의 삶 1(해양문화 1)

해양문화영역의 전시 주제는 바다에서의 삶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삶의 전형적 형태인 전통어로와 해양신앙, 해양예술과 문학을 주요 테마로 전시연출하고 있다. 해양문화관의 한가운데에는 위도 띠배가 전시되어 있다. 위도 띠배는 전북 부안지역에서 매년 정월 초사를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위도띠벤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85. 2. 1 지정)라는 공동제의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의기의 일종이다. 서구의 해양국가에서는 보험을 통해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험한 바다에서의 삶에서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도띠벤틀이 등의 해양신앙에 의존하였다. 해양신앙은 바다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저변에 깔려있어 이를 이해하여야만 해양문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해양신앙이 대부분 무형으로 전승되거나 제의 장소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도띠벤틀이는 '띠배' 라고 하는 의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양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오브제가 될 수 있었다.



위도띠벤틀이가 시작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서해안의 어업 중심지였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일찍부터 행해졌을 가능성 높다.* 하지만 서해안에서 조기 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과 위도 지역의 입도조(入島祖)의 역사, 위도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 등을 종합해 보면 위도띠벤틀이는 200 ~ 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도띠벤틀이는 원당제, 띠배 제작, 주산 돌기, 용왕굿, 띠배 띄우기, 대동마당(뒤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초사흘날 아침이 되면 뱃기를 든 선주와 풍물을 치는 주민들, 무녀와 축관 등이 영기를 앞세우고 원당에 올라 축문을 읽고, 무녀가 진행하는 당굿에 들어가 성주굿, 산신굿, 손님굿, 지신굿, 서낭굿, 깃굿, 문지기굿으로 진행한다. 특히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일 년 동안 배에 모실 서낭을 내림받는 깃굿은 어업민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굿이다. 당굿을 마치면 제물을 챙겨 마을로 내려와 곧장 마을의 동쪽 바닷가로 가서 한지에 싯 용왕 밥을 바다에 던지고 절을 한다. 용왕 밥을 던지고 나면 마을 한 바퀴를 도는 주산 돌기에 들어간다. 주산 돌기는 제관과 풍물패, 뱃기를 든 일행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따라 마을을 도는 것을 말한다. 이 때에는 한지에 싯 당밥을 땅에 묻고 무녀와 제관이 절을 하고 나면 풍물을 친다. 이는 마을이 평안하고 아무런 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굿과 주산 돌기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 마을 선착장에서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바다에 띄워 보낼 띠배를 제작한다. 띠와 짚·싸리나무 등을 함께 사용해 배 형태로 만들고, 돛대와 닻을 달아 띠배를 완성한다. 그리고 나면 성기가 부각된 뽕짚으로 만든 제웅을 각 위치에 맞는 곳에 놓는다.

주산 돌기와 띠배 제작을 마치고 나면 무녀를 중심으로 용왕굿을 한다. 용왕굿은 띠배가 제작된 선착장에서 진행하며, 이때에는 마을의 여자들은 물론 마을에 살고 있는 온 주민이 모여 용왕굿을 지켜본다. 용왕굿이 끝나면 여자들은 용왕 상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조금씩 떼어 큰 함지에 담아 섞은 다음 바다에 고수레를 한다. 이때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가래질 소리와 배치기, 술배 소리 등을 부르며 한바탕 큰 놀이판을 펼친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낸다. 띠배를 모선 母船에 연결하여 바다 가운데로 끌고 나가 크게 원을 그리며 돌고 난 뒤에 연결된 끈을 풀어놓으면 띠배는 망망대해로 떠나간다. 모선에는 풍물패와 소리꾼 등이 승선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무사히 띠배가 용왕님께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기 위해 함께 나갔던 어선이 마을로 돌아오면 해변에서는 큰 놀이판이 벌어진다. 이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의 모든 주민이 모여 한 해 동안의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며 밤늦게까지 놀이판을 벌인다.

놀이판이 끝나면 배를 부리던 남자들은 당집 반대편에 있는 도젯봉에 올라 도깨비불을 관찰한다. 도깨비불이 보이는 어장에 그물을 놓으면 한 해 풍어를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젯봉에 올라가 도깨비불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제의를 주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비로소 위도띠벤틀이가 마무리된다.

* 이하 위도 띠벤틀이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기획전시

우리바다와 해양지명 기획전

바다, 우리말 이름을 얻다 (Oceans, Earn Names and Fame)

전시기간 2013년 11월 1일 ~ 11월 30일

전시장소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박물관

주관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바다, 우리말 이름을 얻다 Oceans, Earn Names and Fame >이라는 제목으로 해양지명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해양문화의 핵심 산물인 해양지명을 소개하고, 또 우리말로 된 국제 표준지명을 등재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울여 왔던 노력과 해양지명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크게 ‘바다 크게 보기’ Wider Look of the Ocean, ‘바다 들여다보기’ Closer Look into the Ocean, ‘바다 우리말 이름을 얻다’ Oceans, Earn Korea Name, ‘아름다운 우리 바다’ Our Magnificent Seas 4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형태의 지도와 모형물, 안내문, 영상물을 통해 각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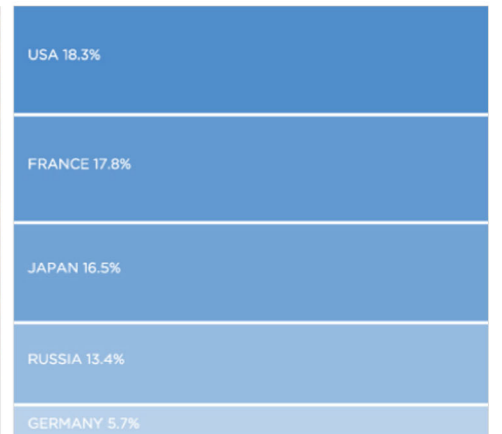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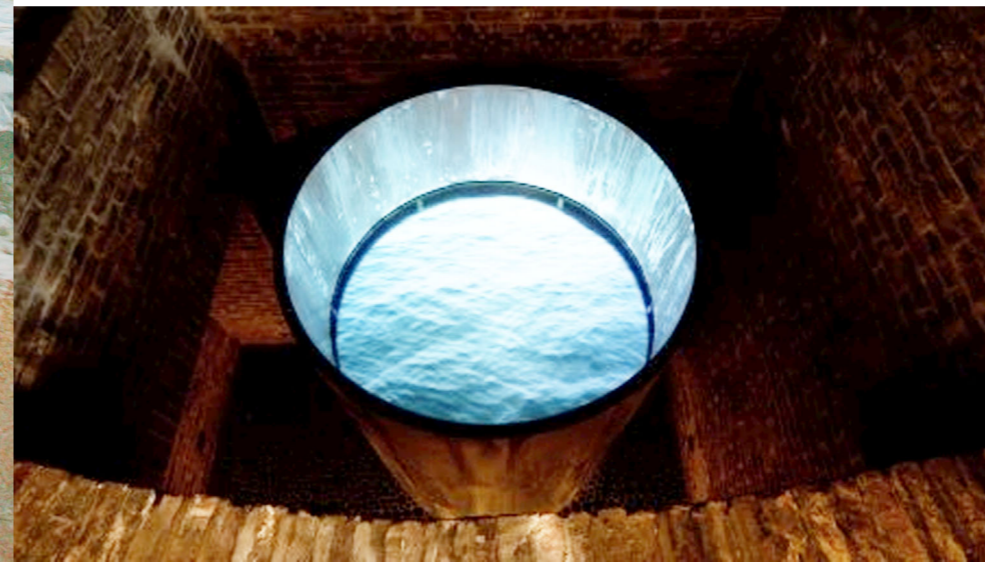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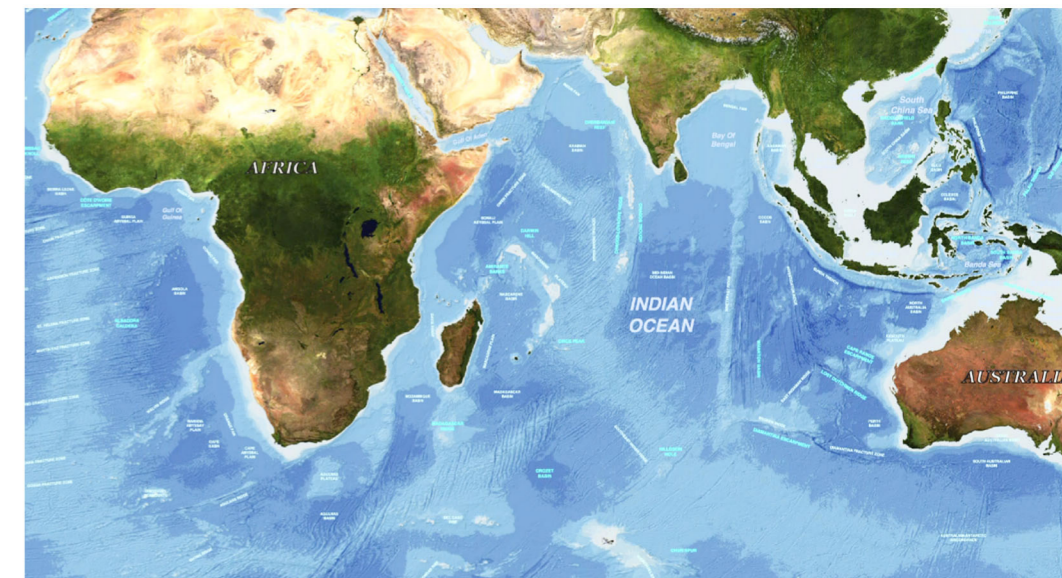
‘바다 크게 보기’에서는 지정학적 한계와 민족적 개념을 넘어 ‘크고 넓은’ 시야로 바다를 하나의 큰 생명체로 볼 것을 제안하고, ‘바다 들여다보기’에서는 해양지명과 관련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해도와 해양측정법을 소개한다. ‘바다, 우리말 이름을 얻다’는 전시의 핵심적 내용인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국제등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즉 해양지명을 결정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말로 국제등재된 해양지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달한다.

‘아름다운 우리 바다’에서는 동해, 황해, 대한해협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현재 인식에 대해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해양경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점검하고 관람객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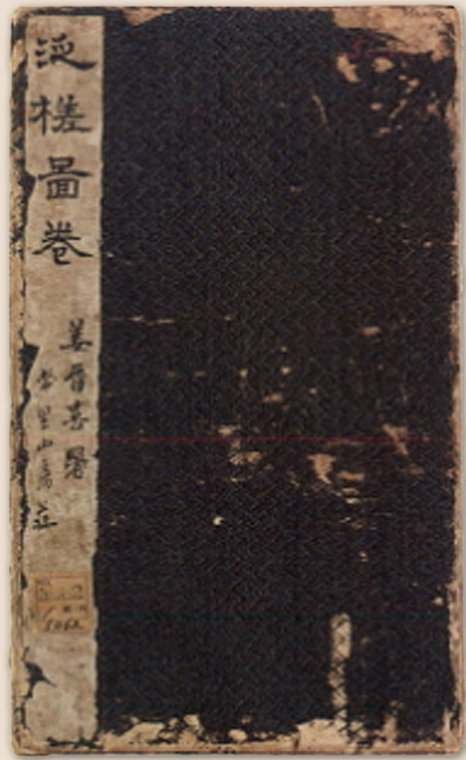
이와 함께 현대미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작가들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해석을 더한 작품들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해양지형과 지명, 해도, 경계의 문제를 각각 인터랙티브 정보 시각화, 인포그래픽, 영상설치, 그래픽 디자인 작업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 1 방 & 리, Oceans Unlimited, 인포그래픽, HD 영상, 2013 : 인류가 살아왔던 터전인 명보다 더 많은 공간과 시간, 자원과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 영역에 관한 여러 정보를 모니터링을 통해 전달한다.
- 2 박기진, 발견, 영상 설치, 2013 : 작가가 중앙 아프리카와 남극해 등지를 여행하는 동안 수집한 해양 이미지에 착안하여 제작된 전망대와 벤치로 구성된 작업이다.
- 3 팀 보이드, Five Kingdoms, 가변크기, 2013 : 1884개의 해저지명 정보를 재구성한 인터랙티브 정보 시각화 작업으로, 해저지명 제안 국가 분석을 토대로 해저지형 연구의 정치·경제적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Five Kingdoms



범사도, 1858, 25.3×30.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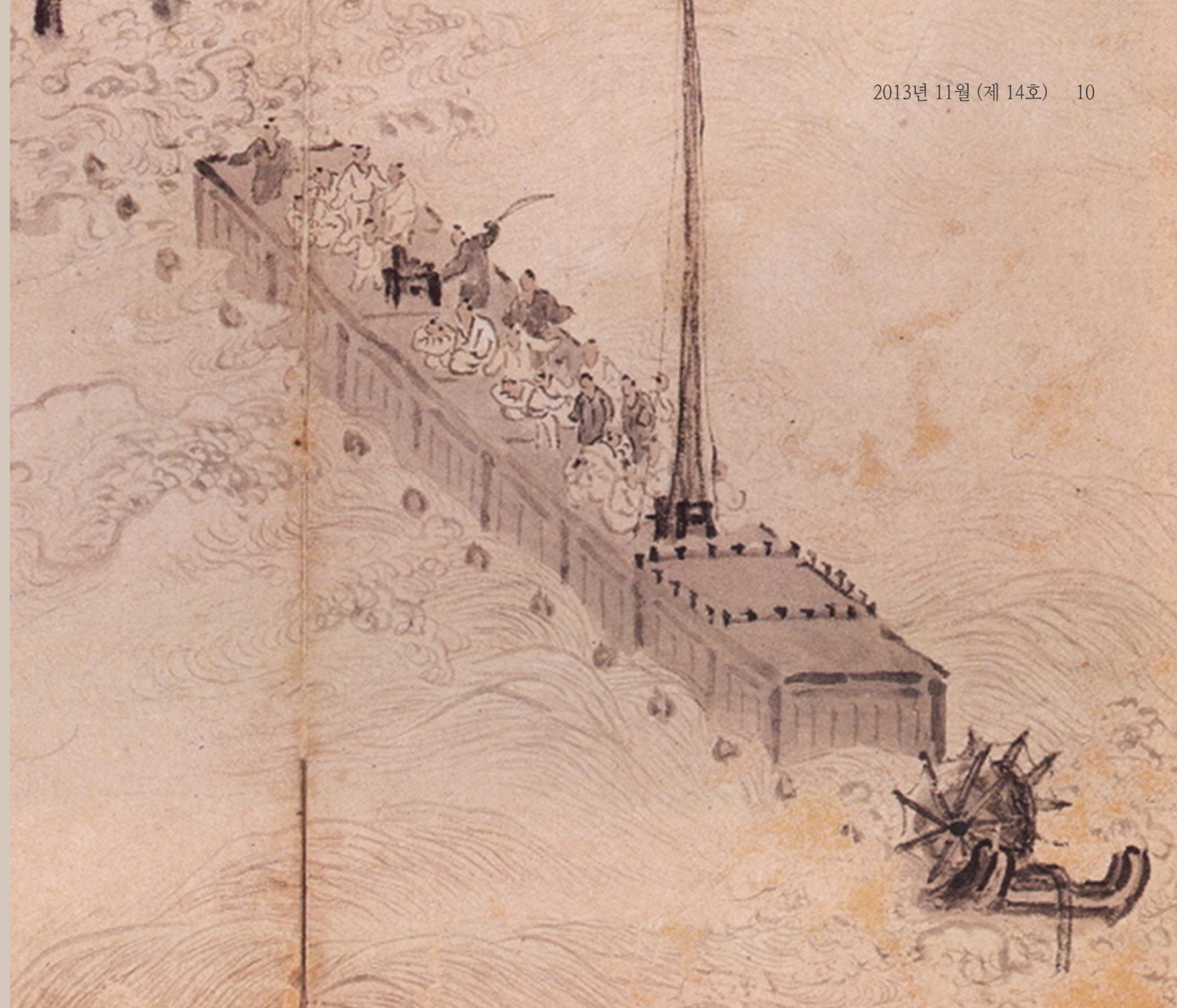
소장품 이야기

범사도권 泛槎圖卷

1858년 여름 조선 말기 화가인 유숙이 그린 그림으로 1856년 역관 김계운 金繼運 이 대마도에 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그린 유숙 劉淑 (1827~1873)은 본관은 한양 漢陽, 자는 선영 善永 또는 야군 野君, 호는 혜산 惠山 으로 도화서 圖書署 화원으로 철종어진 제작에도 참여하였으며, 1872년(고종 9)에는 고종어진도사 高宗御眞圖寫 의 수종화사 隨從畫師 로 참여하였다. 유숙은 당대 김정희 金正喜 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의 그림에 대해 김정희는 “ 필치에 속기 俗氣 는 없으나 다만 적운 積潤 의 의 意 가 모자란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림이 수록된 범사도권이라는 책 표지 왼쪽에는 세로로 길게 엮은 한지에 「泛槎圖卷 姜晉喜 著 孝里山房莊」 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 조선 말기 화가 강진희가 소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책을 넘겨 그림이 그려진 양면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泛槎圖 戊午仲 …… 惠山淑」이라는 제발題跋이 세로로 4줄이 적혀져 있다. 그림에 쓰여진 글에서 1855년(철종 6) 2월 일본 관백 關伯 의 습위 襲位 를 축하하기 위해 사절에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행을 겪은 김계운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김석준 金奭準 이 유숙에게 청해서 그날의 정황을 그리게 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화폭의 가운데에 큰 파도를 만나서 배의 한쪽 돛대가 부러져서 파도에 쓸려 떠밀려져 가고 있고 다른 파도들이 배 위를 덮쳐 배에 탄 사람들이 배의 누각 위로 모여 피신한 장면을 그렸다.

선체의 대부분은 큰 파도에 덮여져서 침수되고 누각 위로 피신한 사람들은 앉거나 쓰러진 채 그들에게 닥친 긴박한 상황을 검은 옷을 입은 일본인이 칼로 배의 돛대를 치는 듯 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태연스럽게 눕거나 모여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 흑백의 대비와 그 사람들의 성정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재미난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풍랑을 만나 5일 동안 표류하던 배는 울산 방어진에 도착해서 구조되었는데, 이 때의 일을 들은 김석준이 김정희에게 지도를 받았던 화원 유숙에게 부탁하여 1858년에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책에 수록된 그림이어서 크기(25.3×30.2cm)는 크지는 않지만 험한 파도 물결과 그 파도에 떠밀려서 내려가는 검정색 돛대, 배를 삼키는 듯 한 물결에 따라 돌고 있는 물레의 표현 등을 매우 섬세하게 담묵의 필체로 잘 나타낸 그림이다.

박물관 사람들

‘박물관에 수족관이?’ 라는 의문을 품으셨나요? 다양한 해양 생물도 우리의 ‘자연 유물’입니다. 옛날엔 공룡이 살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흐르고, 기후도 변화하며 주변엔 다양한 생물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먼 훗날에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박물관 수족관 속 전시된 해양생물들이 먼 훗날 사라지게 되더라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살아있는 어떠한 생물들을 자연 유물로서 사람들 앞에 전시했다.’ 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살아 숨 쉬는 자연 유물을 저는 저희 팀장님의 지휘 아래 우리 팀원들과 함께 관리하고 연구하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물들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학예사 분들도 다들 그 일을 하며 느끼시는 점이 많으시겠지만, 수족관 생물들을 관리하는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일인데 어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작은 물고기들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상어와 같은 큰 물고기들도 저희의 손에 의해 생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행동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항상 깊게 생각하고 언제나 긴장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대형 산호 수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수조를 여러분들에게 보이기까지 정말 무수히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요. 도깨비방망이 똑딱! 산호 수조 나와라! 가 아닌 그 하나의 수조를 오픈하기 위해서 겪은 많은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노력과 흘린 우리들의 땀. 어릴 적 놀러 갔던 수족관. 수조들을 지나치며 “우와~ 예쁘다~ 멋있다~”라고 여러 가지 감탄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우와”라는 한마디의 말을 듣기 위해 수조를 관리하는 아쿠아리스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였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대형 산호 수조가 오픈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증을 가지고, 듣게 될 감탄사들을 기대하며, 그 기대감으로 수많은 야근도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하는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만 여러분들이 저희의 노력의 결과물을 보시고 좋아하셨으면 그 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들이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생물 전시관을 관람하실 때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분들이 ‘이런 물고기가 있었나?’, ‘수조가 원래 이거였나?’, ‘또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항상 들 수 있게끔 언제나 노력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고민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우와~’ 라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에게는 피로를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피로회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다미(수족관 관리팀)

박물관 교육행사

Happy Weekend | 우리가족 자산어보 만들기

11~12월 매주 토요일 14:00~15:30 / 초등학교를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초등학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나오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식탁에서 즐겨먹는 물고기 또는 해초들에 대한 우리 가족만의 어보를 고서 형식으로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 고대바다 속 시간여행

11월 2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11:00~12:30 / 초등학교 5학년~중학생 / 30명 / 제2강의실 / 인터넷 및 현장접수 / 무료

주 5일제 학교 운영 시행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박물관을 찾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공개문화강좌 | 유물에 담긴 해양문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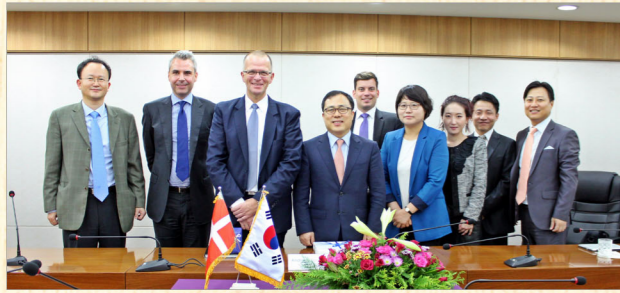
11월 7일~11월 28일 매주 목요일 14:00~16:00 / 일반인 / 30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및 전화 접수 / 무료

박물관의 전시물 및 해양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해양문화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해양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

시간	영역	주제	강사
11월 7일(목)	해양민속	생태지킴이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	좌혜경(제주발전연구원)
11월 14일(목)	해양탐험	남극의 자연환경과 우리나라의 활동	장순근(극지연구소)
11월 21일(목)	해양통신	천리안 위성 및 후속 위성의 개발	최성봉(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월 28일(목)	해양생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물 속 생물	정민민(국립수산과학원)



박물관 소식



한-덴마크 해운협력회의 2013.10.7

한국과 덴마크 간 해운협력 회의가 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운물류국장 Andreas Nordseth 덴마크 해사 청장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를 통해 선박금융, 선원 양성, 북극해 진출, 크루즈 산업 및 선박 관리업 육성 등의 해운정책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결혼예식업무 지원을 위한 약정식 체결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결혼예식 업무 지원을 위한 약정식'을 16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을 통해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오름마당(야외공연장, 400석)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다목적 강의실을 선원 및 선원 자녀의 결혼예식장으로 무료 대여함으로써 저소득 선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도 화가 권용섭의 '독도사랑 수묵속사 퍼포먼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화가 권용섭의 '독도사랑 수묵속사 퍼포먼스'가 박물관 앞 1층 다목적홀에서 펼쳐졌습니다. 12m의 대형 캔버스를 펼쳐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생동감 있는 독도를 선보이며 다시 한 번 우리 땅 독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관람객 200만 명 돌파 '토크 클래식' 2013.10.9

10월 9일,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 15개월 만에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람객 2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작은 음악회 '토크 클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토크 클래식을 통해 딱딱하고 어려운 클래식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형식의 클래식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강연

박물관 대강당에서 독도 전문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독도 문제와 한일관계'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해양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수학술도서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소장 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의 주제로 활발한 소통의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도서 300권 기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아동도서 300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나눔과 인성'을 소재로 한 기증도서는 해양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서기증을 통해 어린이들의 지식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도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강연 후기



안지 했어도 전제하 여사라
진색된 사람 안에서 참 좋았어.
해라 처분은 재워 여기부터 들었어
하다. 주일이 세워졌을 땐의 흥.
함함 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
연락하는 관계라야야야야야야
가려들 듣기가 하다고 생각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재밌는 증언을 통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
지를 역사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혜가 고등학교 2학년 김혜라-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용기가 인류평화를
탄생하는 뜻, 역사적 근거와 자료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네
조금 힘내 -권용섭-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독도 관련 강의
잘 듣고 갑니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정확한 역사 의식은
나라를 발전 시킵니다.

호사카 유지
강연이 정말 좋았다.

오래전부터 우리 땅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이나 간간히 들어 왔지만 이번만큼은 심각했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이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는 정확한 내용을 들으니 그동안 다소 야비
인위적인 부분이 완전히 쉽게 납득이 되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까지 모든 부분까지를 통해 알게 되니
당연한 우리 땅이 더 이상 문제라 할 수 없는 우리 땅임을 강력히
증명해 보았을 것이니 유감하고 뜻깊은 시간이라 만족스럽다.
이와 같은 강연은 정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만큼이나 주장하는 일본인 주위에 대해서도 증명
반박할 수 있고 모르고 있는 일본인에게도 가르치고 이어서 제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유익한 강연.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이 재밌어.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이 재밌어.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이 재밌어.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이 재밌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강연이
재밌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강연이
재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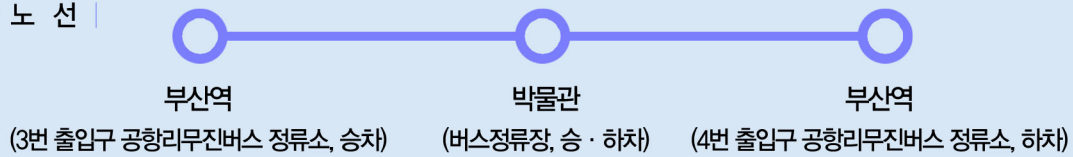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

무료셔틀버스 운행안내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11월 5일(화)부터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 일 자 | 2013년 11월 5일(화)부터

● 노 선 |



● 횟 수 | 화~금요일 5회, 토요일 7회, 일·공휴일 6회

회 차	박물관 출발	부산역 도착/출발	박물관 도착	비 고
1	10:00	10:30	11:00	
2	11:30	12:00	12:30	
3	14:00	14:30	15:00	
4	16:00	16:30	17:00	
5	18:20	19:00	19:30	
6	19:30	20:00	20:30	토,일, 공휴일
7	21:20	21:40	-	토요일

